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방안 연구¹⁾

김성봉*

목 차

- I. 서론
- II. 고교평준화 실시현황과 찬반논리
- III.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요구조사
- I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에는 선발에 의한 방법과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입학시험, 내신성적, 입학시험과 내신성적혼합에 의한 선발방법이며, 후자는 학생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임의 배정하는 제도로서 일명 고교평준화이다. 추첨배정방식인 고교평준화 정책은 해방 후 채택된 선발방법으로 학교별 전형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2006년 현재 전국 27개의 시에서 그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발방법인 학교별 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왔다. 즉, 학교별 전형은 고교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입시 부담을 가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1) 2007년 제주도교육청 연구용역보고서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 방안 연구」(김성봉 외8인, 2008)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

중시시킬 뿐만 아니라, 입시과외 등 사교육의 증가로 인한 중등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교육의 평등성 원칙을 저해하는 바(한국교육개발원, 2004: 53), 고교평준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준화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며 고교평준화 정책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즉, 평준화 정책은 이질적인 학습 집단이 한 학급에 편성되기 때문에 효율적 수업이 곤란해지는 등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교육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하는 데, 평준화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79년 제주도 지역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7년 여름, 제주도 8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6개 고교의 교장들이 현행 고입 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현행 고입 배정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방식은 제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이들 교장 단은, 현행 배정방식은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성적에 우수한 학생 유치 등에 유리한 반면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조차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신입생 배정학교별 성적분포가 이를 반증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특정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는 현상은 학교의 노력의 결과로서 자연적인 현상이며, 현행 고입제도에 대한 불만은 학교의 욕심이라고 하면서 현행 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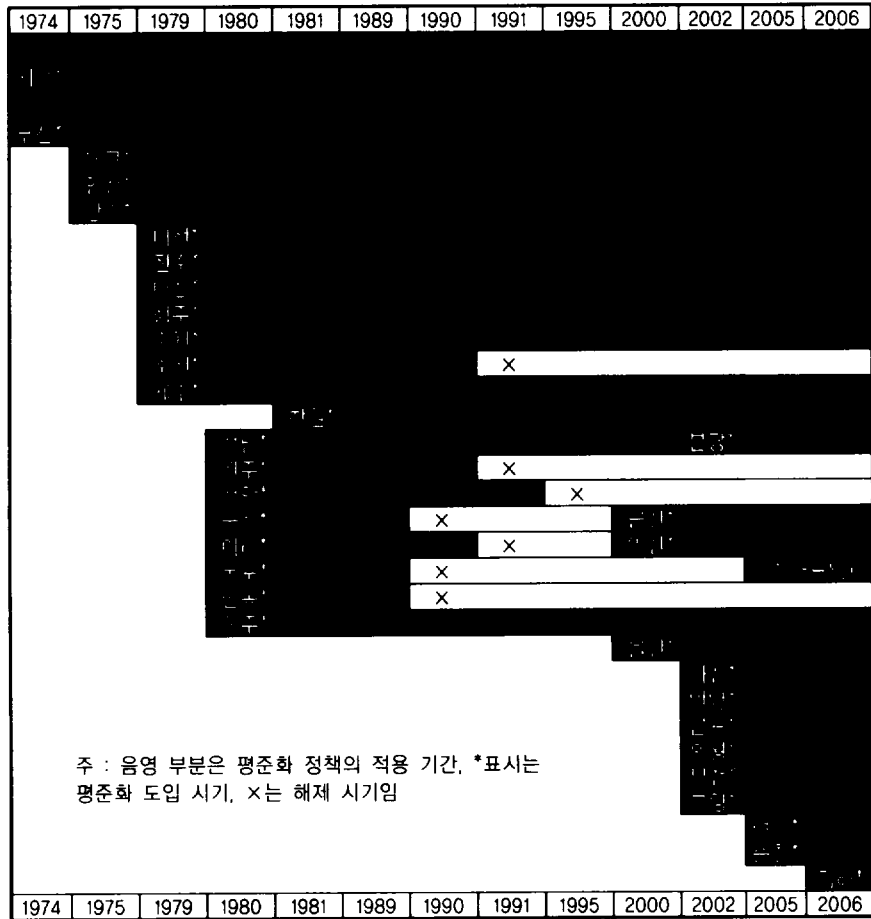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 상황은 현행 배정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없어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설문조사로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신입생 선발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고교평준화 실시현황과 찬반논리

1. 고교평준화 실시현황

2006년 현재 전국 13개 교육청 27개의 시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충북(청주), 전북(군산, 익산, 진주), 전남(목포, 여수, 순천), 경남(진주, 마산, 창원, 김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고교평준화 실시 현황

2. 고교평준화 찬성 논리

평준화는 인간주의 교육사상, 교육의 기회균등,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이념적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며(황정규, 1974; 신동로, 권인택 2000: 22 재인용), 따라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이념적 목표에 바탕을 둔 선발정책이다. 선발정책으로서의 평준

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과열과외와 재수생 누적과 같은 교육문제의 완화,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김영철, 1995: 17).

여러 학자들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신동로, 권인택, 2000). 첫째,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중등교육은 청소년의 요구,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으로 개방되어 보편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학교 조직에서 평등주의적 수평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영국의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 프랑스의 '교육 민주화', 독일의 '교육 특권 폐지', 스웨덴의 '통합고등학교의 실현'과 같은 구호는 오늘날의 중등교육의 성격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정책이 의무교육 전국화 정책을 지향하려는 것과 더불어 평준화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 입시경쟁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은 보다 좋은 학교,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다. 중학교 무시험제도의 도입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것처럼,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졌으며,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켰다.

셋째, 과열과외와 재수생 누적과 같은 교육적 문제를 완화시켰다. 평준화 정책 추진은 고교입학 전형시험에 의해 대부분의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재수생을 격감시켰고, 무작위 추첨으로 과외수업의 필요성을 차단시켜 학교에서의 경쟁을 완화시켰다.

넷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였다.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대도시의 명문고교의 일류대학 합격률이 지방학교에 비해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고, 서울 지역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또한 이 제도로 말미암아 영세한 사학도 교육 투자를 가능케 하여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교평준화 반대 논리

고교평준화 반대 논리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관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능이나 학습능력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일정한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며, 각자가 받은 교육수준은 그가 장래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얼마만큼이나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장차 엘리트의 자리를 차지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구별해 내야한다는

것이다(김운태, 1991: 18).

평준화 반대의 구체적인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신동로, 권인탁, 2005). 첫째, 중등교육의 보편화의 일환인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 구현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한계에 의해 교육의 수월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교 입시에서 교육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려는 노력은 고교입시 수준을 저하시켰고, 능력이 다양한 학생을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시키다보니 학생들의 개별적 교육요구를 소홀히 하게 되는 평균 지향의 수업이 되었다.

둘째, 비평준화 제도는 학업집단의 동질성이 보장되어 학교 내 학력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에 의한 학생선발은 학생집단의 이질화에 따른 교사의 학습지도 곤란성과 그에 따른 학교 자체의 파행적 운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비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자 개인의 자아실현 수단이기 때문에, 학교는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은 자유로운 교육 선택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와 학생의 선호와 관계없이 학교를 임의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비평준화 정책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 사학은 공학과 달리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사학 구분 없이 동일한 정부 정책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학 나름의 건학이념이나 사학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다섯째, 평준화는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야기한다. 평준화 정책이 대체로 대도시의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나 평준화된 지역일지라도 지역 간의 학력차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도시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수가 적어 추첨배정의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으며, 지역 간 학력차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특정지역을 선호하여 조기 이주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Ⅲ.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요구조사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본 조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물들을 참조해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며,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와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설문지 구성

현행 고교 배정방법이나 기준 이해	1	공통(중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고1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신입생 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	2	공통
가장 바람직한 고입 배정방법	3	공통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	4	공통
가장 합리적인 배정 안	5	공통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	6	중2, 3학년 및 중2, 3학년 학부모
선지망 고등학교 결정 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	7	공통(고1학생 및 학부모는 8번 문항)
고등학교에서 선지망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8	공통(고1학생 및 학부모는 9번 문항)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인식	9	공통(고1학생 및 학부모는 10번 문항)
고교 입학전형에 대한 의견	10	공통(고1학생 및 학부모는 11번 문항)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개방형 문항)	11	공통(고1학생 및 학부모는 12번 문항)
희망고 배정여부		고1학생 및 학부모의 6번 문항
고등학교 배정결과 만족도		- 고1 학생 및 학부모의 7번 문항 - 교사의 6번 문항

3. 표본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 전지역 42개의 중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주시내

8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이들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였다. 중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 및 학년 당 1개 반씩 다단계 체계적 군집표집을 하였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당 10명씩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은 2009년 고입의 당사자들로서 학교선택과 배정방법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선정한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는 2008년 고입의 당사자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및 학부모는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사람들로서 고입전형과 관련해 기억효과가 가장 큰 집단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선정한 것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고입 선발방법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총 6,71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437부가 미회수되어 설문지 회수율은 93.5%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실제 통계분석 대상 표집크기는 <표 III-2>와 같이 5,935명이었다.

<표 III-2> 통계분석 대상 표집 수

구분	인원수	백분율
중2학생	1,391	23.4
중2학부모	1,144	19.3
중3학생	1,302	21.9
중3학부모	1,065	17.9
고1학생	297	5.0
고1학부모	279	4.7
중학교교사	381	6.4
고등학교교사	76	1.3
전체	5,935	100.0

4. 조사일시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였다.

5. 자료처리

응답된 설문지 검토, 데이터 코딩, 편집과정을 거쳐 SPSS WIN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스퀘어(Chi-Square)검증을 하였다.

6. 결과 및 해석

1) 현행 배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이해

<표 III-3>은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식이나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chi^2=1159.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행 배정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이해하는 편(35.4%)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충 알고 있음(31.9%), 정확히 알고 있음(14.3%), 잘 모름(13.8%), 전혀 모름(4.4%), 무응답(.3%) 순이었다.

<표 III-3> 현행 배정방법 및 기준 이해 정도(단위 : 명, %)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대충 알고 있음	이해 하는 편	정확히 알고 있음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113 (8.1)	331 (23.8)	549 (39.5)	333 (23.9)	57 (4.1)	8 (.6)	1,391 (100.0)	1159.37***
중2 학부모	42 (3.7)	176 (15.4)	394 (34.4)	376 (32.9)	151 (13.2)	5 (.4)	1,144 (100.0)	
중3 학생	54 (4.1)	145 (11.1)	441 (33.9)	560 (43.0)	101 (7.8)	1 (.1)	1,302 (100.0)	
중3 학부모	44 (4.1)	119 (11.2)	331 (31.1)	420 (39.4)	151 (14.2)	0 (.0)	1,065 (100.0)	
고1 학생	3 (1.0)	19 (6.4)	74 (24.9)	133 (44.8)	68 (22.9)	0 (.0)	297 (100.0)	
고1 학부모	3 (1.1)	22 (7.9)	55 (19.7)	120 (43.0)	79 (28.3)	0 (.0)	279 (100.0)	
중학 교사	1 (.3)	4 (1.0)	44 (11.5)	136 (35.7)	194 (50.9)	2 (.5)	381 (100.0)	
고교 교사	0 (.0)	1 (1.3)	3 (3.9)	25 (32.5)	47 (61.8)	0 (.0)	76 (100.0)	
전체	260 (4.4)	817 (13.8)	1891 (31.9)	2103 (35.4)	848 (14.3)	16 (.3)	5,935 (100.0)	

***p<.001

2) 고입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표 III-4>는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chi^2=135.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입생 배정 시 최우선적 고려사항 1순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으로 그 응답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60.5%였다. 다음은 통학거리 및 시간(20.6%), 학교 간 성적 차이 해소(18.0%) 등의 순이었다.

<표 III-4> 신입생 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단위 : 명, %)

구분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통학거리 및 시간	학교간 성적 차이해소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850 (61.1)	216 (15.5)	314 (22.6)	10 (.7)	1 (.1)	1,391 (100.0)	135.37***
중2 학부모	638 (55.8)	291 (25.4)	205 (17.9)	9 (.8)	1 (.1)	1,144 (100.0)	
중3 학생	782 (60.1)	256 (19.7)	247 (19.0)	17 (1.3)	0 (.0)	1,302 (100.0)	
중3 학부모	619 (58.1)	280 (26.3)	157 (14.7)	8 (.8)	1 (.1)	1,065 (100.0)	
고1 학생	188 (63.3)	56 (18.9)	51 (17.2)	2 (.7)	0 (.0)	297 (100.0)	
고1 학부모	183 (65.6)	64 (22.9)	31 (11.1)	0 (.0)	1 (.4)	279 (100.0)	
중학 교사	283 (74.3)	50 (13.1)	45 (11.8)	2 (.5)	1 (.3)	381 (100.0)	
고교 교사	47 (61.8)	9 (11.8)	20 (26.3)	0 (.0)	0 (.0)	76 (100.0)	
전체	3,590 (60.5)	1,222 (20.6)	1,070 (18.0)	48 (.8)	5 (.1)	5,935 (100.0)	

***p<.001

3) 가장 바람직한 고입 배정방법

<표 III-5>는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chi^2=166.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66.8%)이었다. 다음은 근거리 배정(20.4%), 컴퓨터 무작위 추첨(9.5%) 등의 순이었다.

<표 III-5> 가장 바람직한 고입 배정방법(단위 : 명, %)

구분	선지원 후추첨 배정	컴퓨터 무작위 추첨	근거리 배정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940 (67.6)	147 (10.6)	261 (18.8)	34 (2.4)	9 (.6)	1,391 (100.0)	166.15***
중2 학부모	700 (61.2)	100 (8.7)	313 (27.4)	24 (2.1)	7 (.6)	1,144 (100.0)	
중3 학생	903 (69.4)	137 (10.5)	216 (16.6)	43 (3.3)	3 (.2)	1,302 (100.0)	
중3 학부모	685 (64.3)	94 (8.8)	259 (24.3)	21 (2.0)	6 (.6)	1,065 (100.0)	
고1 학생	239 (80.5)	21 (7.1)	31 (10.4)	3 (1.0)	3 (1.0)	297 (100.0)	
고1 학부모	181 (64.9)	21 (7.5)	70 (25.1)	6 (2.2)	1 (.4)	279 (100.0)	
중학 교사	277 (72.7)	26 (6.8)	57 (15.0)	18 (4.7)	3 (.8)	381 (100.0)	
고교 교사	42 (55.3)	20 (26.3)	5 (6.6)	7 (9.2)	2 (2.6)	76 (100.0)	
전체	3,967 (66.8)	566 (9.5)	1,212 (20.4)	156 (2.6)	34 (.6)	5,935 (100.0)	

***p<.001

4)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표 III-6>은 현행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chi^2=469.6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행 배정방식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는 문제가 약간 있다(34.6%)였다. 다음은 문제가 별로 없다(31.3%), 잘 모르겠다(14.2%), 문제가 매우 많다(11.1%), 문제가 전혀 없다(8.2%)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약간 있다는 응답과 문제가 매우 많다는 응답을 합치면 45.7%로서 문제가 별로 없다와 문제가 전혀 없음을 합친 39.5%보다 높았다.

<표 III-6>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단위 : 명, %)

구분	문제 전혀없음	문제 별로없음	문제 약간있음	문제 매우많음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96 (6.9)	378 (27.2)	499 (35.9)	120 (8.6)	291 (20.9)	7 (.5)	1,391 (100.0)	
중2 학부모	103 (9.0)	398 (34.8)	403 (35.2)	86 (7.5)	143 (12.5)	11 (1.0)	1,144 (100.0)	

<표 III-6>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단위 : 명, %)

구분	문제 전혀없음	문제 별로없음	문제 약간있음	문제 매우많음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χ^2
중3 학생	113 (8.7)	418 (32.1)	416 (32.0)	115 (8.8)	237 (18.2)	3 (.2)	1,302 (100.0)	469.66***
중3 학부모	85 (8.0)	390 (36.6)	370 (34.7)	84 (7.9)	129 (12.1)	7 (.7)	1,065 (100.0)	
고1 학생	32 (10.8)	90 (30.3)	107 (36.0)	47 (15.8)	21 (7.1)	0 (.0)	297 (100.0)	
고1 학부모	28 (10.0)	81 (29.0)	81 (29.0)	75 (26.9)	12 (4.3)	2 (.7)	279 (100.0)	
중학 교사	25 (6.6)	94 (24.7)	152 (39.9)	95 (24.9)	12 (3.1)	3 (.8)	381 (100.0)	
고교 교사	7 (9.2)	9 (11.8)	23 (30.3)	37 (48.7)	0 (.0)	0 (.0)	76 (100.0)	
전체	489 (8.2)	1,858 (31.3)	2,051 (34.6)	659 (11.1)	845 (14.2)	33 (.6)	5,935 (100.0)	

***p<.001

5) 가장 합리적인 배정 안

<표 III-7>은 가장 합리적인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인데, $\chi^2=923.7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1안(현행안)으로 그 응답비율은 40.1%였다. 다음은 2안 20.7%, 3안 16.5%, 4안 16.1% 순이었다.

<표 III-7> 가장 합리적인 배정 안(단위 : 명, %)

구분	1안	2안	3안	4안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646 (46.4)	301 (21.6)	199 (14.3)	155 (11.1)	90 (6.6)	1,391 (100.0)	923.77***
중2 학부모	459 (40.1)	257 (22.5)	183 (16.0)	116 (10.1)	129 (11.3)	1,144 (100.0)	
중3 학생	573 (44.0)	309 (23.7)	228 (17.5)	117 (9.0)	75 (5.8)	1,302 (100.0)	
중3 학부모	445 (41.8)	240 (22.5)	196 (18.4)	114 (10.7)	70 (6.6)	1,065 (100.0)	
고1 학생	78 (26.3)	37 (12.5)	35 (11.8)	146 (49.2)	1 (.3)	297 (100.0)	
고1 학부모	70 (25.1)	34 (12.2)	28 (10.0)	142 (50.9)	5 (1.8)	279 (100.0)	
중학 교사	92 (24.1)	45 (11.8)	103 (27.0)	117 (30.7)	24 (6.3)	381 (100.0)	
고교 교사	17 (22.4)	4 (5.3)	7 (9.2)	48 (63.2)	0 (.0)	76 (100.0)	
전체	2,380 (40.1)	1,227 (20.7)	979 (16.5)	955 (16.1)	394 (6.6)	5,935 (100.0)	

***p<.001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은 40.1% ~ 46.4%의 범위에서 1안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30.7% ~ 63.2% 범위에서 4안을 가장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6) 선지망고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표 III-8>은 선지망고(배정받고 싶은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고려할/고려한)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인 데, χ^2

<표 III-8> 선지망고 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단위 : 명, %)

구분	학교교육 여건	통학 거리·시간	학교 전통·명성	입학후 내신성적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518 (37.2)	359 (25.8)	154 (11.1)	315 (22.6)	33 (2.4)	12 (.9)	1,391 (100.0)	284.25***
중2 학부모	527 (46.1)	313 (27.4)	127 (11.1)	132 (11.5)	10 (.9)	35 (3.1)	1,144 (100.0)	
중3 학생	514 (39.5)	391 (30.0)	159 (12.2)	201 (15.4)	22 (1.7)	15 (1.2)	1,302 (100.0)	
중3 학부모	488 (45.8)	297 (27.9)	144 (13.5)	102 (9.6)	6 (.6)	28 (2.6)	1,065 (100.0)	
고1 학생	134 (45.1)	95 (32.0)	36 (12.1)	24 (8.1)	7 (2.4)	1 (.3)	297 (100.0)	
고1 학부모	119 (42.7)	69 (24.7)	62 (22.2)	18 (6.5)	6 (2.2)	5 (1.8)	279 (100.0)	
중학 교사	209 (54.9)	116 (30.4)	39 (10.2)	13 (3.4)	2 (.5)	2 (.5)	381 (100.0)	
고교 교사	47 (61.8)	14 (18.4)	8 (10.5)	4 (5.3)	1 (1.3)	2 (2.6)	76 (100.0)	
전체	2,556 (43.1)	1,654 (27.9)	729 (12.3)	809 (13.6)	87 (1.5)	100 (1.7)	5,935 (100.0)	

***p<.001

$\chi^2=284.25$ 로 통계적인 유의미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학교교육 여건으로 응답 비율은 43.1%였다. 다음은 통학거리 및 시간 27.9%, 입학 후 내신성적 13.6%, 학교의 전통과 명성 12.3% 등의 순이었다.

7) 고교 선지망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표 III-9>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선지망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chi^2=346.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30.2%였다. 다음은 대학진학률 향상 18.3%, 우수교사 유치 17.1% 등의 순이었다.

<표 III-9> 고교 선지망율을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단위 : 명, %)

구분	우수 교사 유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 제공	스쿨버 스 등 통학환 경개선	대학 진학률 향상	기타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157 (11.3)	395 (28.4)	199 (14.3)	274 (19.7)	324 (23.3)	26 (1.9)	16 (1.2)	1,391 (100.0)	346.37***
중2 학부모	285 (24.9)	305 (26.7)	191 (16.7)	172 (15.0)	148 (12.9)	9 (.8)	34 (3.0)	1,144 (100.0)	
중3 학생	135 (10.4)	435 (33.4)	196 (15.1)	242 (18.6)	264 (20.3)	16 (1.2)	14 (1.1)	1,302 (100.0)	
중3 학부모	243 (22.8)	304 (28.5)	163 (15.3)	142 (13.3)	170 (16.0)	14 (1.3)	29 (2.7)	1,065 (100.0)	
고1 학생	44 (14.8)	96 (32.3)	43 (14.5)	30 (10.1)	69 (23.2)	13 (4.4)	2 (.7)	297 (100.0)	
고1 학부모	82 (29.4)	91 (32.6)	50 (17.9)	19 (6.8)	33 (11.8)	0 (.0)	4 (1.4)	279 (100.0)	
중학 교사	58 (15.2)	137 (36.0)	69 (18.1)	51 (13.4)	57 (15.0)	4 (1.0)	5 (1.3)	381 (100.0)	
고교 교사	9 (11.8)	30 (39.5)	11 (14.5)	2 (2.6)	21 (27.6)	3 (3.9)	0 (.0)	76 (100.0)	
전체	1,013 (17.1)	1,793 (30.2)	922 (15.5)	932 (15.7)	1,086 (18.3)	85 (1.4)	104 (1.8)	5,935 (100.0)	

***p<.001

8)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인식

<표 III-10>은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chi^2=191.8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42.6%였다. 다음은 비교적 심각하다 39.6%, 매우 심각하다 11.2% 등의 순이었다. 매우 심각하다와 비교적 심각하다를 합한 비율은 50.8%로서 이는 심각하지 않다고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합친 비율 46.9%보다 높았다.

<표 III-10>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심각	비교적 심각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167 (12.0)	497 (35.7)	668 (48.0)	43 (3.1)	16 (1.2)	1,391 (100.0)	191.81***
중2 학부모	104 (9.1)	484 (42.3)	454 (39.7)	44 (3.8)	58 (5.1)	1,144 (100.0)	
중3 학생	180 (13.8)	525 (40.3)	519 (39.9)	67 (5.1)	11 (.8)	1,302 (100.0)	
중3 학부모	110 (10.3)	424 (39.8)	443 (41.6)	42 (3.9)	46 (4.3)	1,065 (100.0)	
고1 학생	47 (15.8)	114 (38.4)	119 (40.1)	16 (5.4)	1 (.3)	297 (100.0)	
고1 학부모	23 (8.2)	112 (40.1)	116 (41.6)	24 (8.6)	4 (1.4)	279 (100.0)	
중학 교사	31 (8.1)	167 (43.8)	172 (45.1)	7 (1.8)	4 (1.0)	381 (100.0)	
고교 교사	1 (1.3)	27 (35.5)	36 (47.4)	12 (15.8)	0 (.0)	76 (100.0)	
전체	663 (11.2)	2,350 (39.6)	2,527 (42.6)	255 (4.3)	140 (2.4)	5,935 (100.0)	

***p<.001

9)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

<표 III-11>은 학생들에게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chi^2=1862.4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이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는 J고(30.9%), O고(26.7%), N고(20.7%), D고(12.4%), B고(6.6%) 순이었다. 여학생은 S여고(27.4%), J여고(21.9%), N고(19.9%), C고(18.2%), B고(10.1%) 순이었다.

<표 III-11>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성별) (단위 : 명, %)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고	259(20.7)	287(19.9)	546(20.3)	1862.42***
D고	155(12.4)	0(.0)	155(5.8)	
*B고	83(6.6)	145(10.1)	228(8.5)	
O고	335(26.7)	0(.0)	335(12.4)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J고	387(30.9)	0(.0)	387(14.4)	***p<.001
S여고	0(.0)	394(27.4)	394(14.6)	
C여고	0(.0)	262(18.2)	262(9.7)	
J여고	0(.0)	315(21.9)	315(11.7)	
무응답	34(2.7)	37(2.6)	71(2.6)	
전체	1,253(100.0)	1,440(100.0)	2,693(100.0)	

*남녀공학

***p<.001

<표 III-12>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가장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chi^2=1737.2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을 둔 학부모가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는 J고(33.8%), O고(30.1%), D고(18.3%), N고(10.6%), B고(2.2%) 순이었다. 여학생 학부모는 S여고(31.9%), J여고(21.8%), C여고(17.3%), N고(15.8%), B고(8.8%) 순이었다.

<표 III-12>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학부모의 자녀성별)
(단위 : 명, %)

구분	남학생학부모	여학생학부모	전체	χ^2
*N고	120(10.6)	170(15.8)	290(13.1)	1737.21***
D고	208(18.3)	0(.0)	208(9.4)	
*B고	25(2.2)	84(7.8)	109(4.9)	
O고	342(30.1)	0(.0)	342(15.5)	
J고	384(33.8)	0(.0)	384(17.4)	
S여고	0(.0)	343(31.9)	343(15.5)	
C여고	0(.0)	186(17.3)	186(8.4)	
J여고	0(.0)	234(21.8)	234(10.6)	
무응답	56(4.9)	57(5.3)	71(5.1)	
전체	1,135(100.0)	1,074(100.0)	2,209(100.0)	

*남녀공학

***p<.001

10) 희망하는 고등학교에의 배정여부

<표 III-13>은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는 75.5%로서 그렇지 않다는 23.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chi^2=2.49$ 로 학생과 학부모 집

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3> 희망하는 고등학교 배정여부(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χ^2
고1학생	222 (74.7)	74 (24.9)	1 (.3)	297 (100.0)	2.49
고1학부모	213 (76.3)	62 (22.2)	4 (1.4)	279 (100.0)	
전체	435 (75.5)	136 (23.6)	5 (.9)	576 (100.0)	

11) 고등학교 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표 III-14>는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의 고등학교 배정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chi^2=262.3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조금 만족한다로 31.2%였다. 다음은 매우 만족한다 27.7%, 보통이다 26.3%, 조금 불만족이다 8.8%, 매우 불만족이다 5.0% 등의 순이었다.

<표 III-14> 고교 배정결과 만족도(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χ^2
고1학생	15 (5.1)	14 (4.7)	65 (21.9)	83 (27.9)	119 (40.1)	1 (.3)	297 (100.0)	262.38***
고1학부모	6 (2.2)	16 (5.7)	45 (16.1)	72 (25.8)	136 (48.7)	4 (1.4)	279 (100.0)	
중학 교사	15 (3.9)	49 (12.9)	145 (38.1)	154 (40.4)	13 (3.4)	5 (1.3)	381 (100.0)	
고교 교사	16 (21.1)	12 (15.8)	17 (22.4)	13 (17.1)	18 (23.7)	0 (.0)	76 (100.0)	
전체	52 (5.0)	91 (8.8)	272 (26.3)	322 (31.2)	286 (27.7)	10 (1.0)	1,033 (100)	

***p<.001

12)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에 대한 의견

<표 III-15>는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

석결과인데, $\chi^2=346.8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순위는 계속해서 현재 방법 (내신50%+선발고사50%)으로 53.2%였다. 다음은 현재의 내신성적 반영방법을 수정보완 22.8%, 내신성적만으로 12.6%, 고입선발고사 실시 9.7% 등의 순이었다.

<표 III-15> 제주도 일반계고 입학 전형방법에 대한 의견(단위 : 명, %)

구분	계속해서현재 재방법으로 (내신50%+ 선발고사 50%)	현재의 내신성적 반영방법 수정보완	내신성적 만으로	고입 선발고사 실시	무응답	전체	χ^2
중2 학생	588 (42.3)	364 (26.2)	259 (18.6)	166 (11.9)	14 (1.0)	1,391 (100.0)	346.88***
중2 학부모	550 (48.1)	290 (25.3)	116 (10.1)	150 (13.1)	38 (3.3)	1,144 (100.0)	
중3 학생	715 (54.9)	261 (20.2)	238 (18.3)	77 (5.9)	11 (.8)	1,302 (100.0)	
중3 학부모	631 (59.2)	231 (21.7)	91 (8.5)	82 (7.7)	30 (2.8)	(100.0)	
고1 학생	192 (64.6)	65 (21.9)	21 (7.1)	18 (6.1)	1 (.3)	297 (100.0)	
고1 학부모	197 (70.6)	45 (16.1)	7 (2.5)	26 (9.3)	4 (1.4)	279 (100.0)	
중학 교사	232 (60.9)	87 (22.8)	17 (4.5)	43 (11.3)	2 (.5)	381 (100.0)	
고교 교사	53 (69.7)	11 (14.5)	0 (.0)	12 (15.8)	0 (.0)	76 (100.0)	
전체	3,158 (53.2)	1,354 (22.8)	749 (12.6)	574 (9.7)	100 (1.7)	5,935 (100.0)	

***p<.001

13) 고입선발고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개방형 문항)

앞에서 고입선발고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9.7%였다.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지만, 이들이 왜 고입 선발고사 실시가 필요한지를 기술한 내용을 카이스케어 검증한 결과를 보면 <표 III-16>과 같다.

1순위는 내신성적 형평성(학교에 따라 내신 성적등급 차이로 내신 성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39.4%였다. 다음은 1, 2학년 때 부족했던 성적 보충가능 24.2%, 사교육비 이중부담 16.3%, 공부량 과중 10.0%, 예체능과목 수행평가 기준 합리성 5.9% 등의 순이었다.

<표 III-16> 고입선발고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개방형)(단위 : 명, %)

구분	중학생	중학생 학부모	중학교 교사	고1 학생	고1 학부모	고교 교사	전체	χ^2
내신 성적형평성	28 (28.3)	23 (29.1)	37 (48.1)	2 (25.0)	11 (84.6)	13 (100.0)	114 (39.4)	200.60***
1,2학년 때 부족했던 성적 보충가능	40 (40.4)	5 (6.3)	19 (24.7)	6 (75.0)	0 (.0)	0 (.0)	70 (24.2)	
사교육비 이중부담	0 (.0)	38 (48.1)	9 (11.7)	0 (.0)	0 (.0)	0 (.0)	47 (16.3)	
공부량 과중	22 (22.2)	6 (7.6)	0 (.0)	0 (.0)	1 (7.7)	0 (.0)	29 (10.0)	
예체능과목수 행평가 기준 합리성	9 (9.1)	7 (8.9)	0 (.0)	0 (.0)	1 (7.7)	0 (.0)	17 (5.9)	
중학교 교실 면학분위기 조성	0 (.0)	0 (.0)	7 (9.1)	0 (.0)	0 (.0)	0 (.0)	7 (2.4)	
남녀공학 남학생의 불리한 내신 성적 보완	0 (.0)	0 (.0)	5 (6.5)	0 (.0)	0 (.0)	0 (.0)	5 (1.7)	
전체	99 (100.0)	79 (100.0)	77 (100.0)	8 (100.0)	13 (100.0)	13 (100.0)	289 (100.0)	

***p<.001

이상의 요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현행 배정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신입생 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신입생 배정방법 중 최적의 방법은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현행 고입 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현행 배정방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배정방법은 1안(현행 배정방식)이지만,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1안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4안을 가장 선호함으로써 집단 간에는 매우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망고 결정시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교사, 학생, 학부모 공히 1순위로 꼽은 학교교육 여건이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선지망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모든 집단이 1순위로 꼽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는 대체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선호도에서는 남학생과 남학생학부모는 공히 1순위와 2순위로 J고와 O고를, 여학생과 여학생학부모는 S여고와 J여고를 선택하고 있다. 배정결과에 대해서는 고1학생 및 학부모와 중·고등학교 교

사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고교 전형방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현재의 전형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요구분석 결과에 터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째, 향후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은 큰 변화 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에서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입학 전형방법은 '계속해서 현재 방법'(내신50% +선발고사50%)이었다.

둘째, 제주시의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고입 배정방법 1순위로 꼽은 것은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었고,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많은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 실시되어왔으며, 그 결과 2006년 현재에는 전국 27개의 시에서 그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

셋째,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향후 학교선택권 확장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신입생 배정 시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학교선택권 보장이었다. 지금까지 동질집단보다 이질집단의 학습효과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peer-group effects)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학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나, 평준화에 따른 이질적 능력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 편성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선택권을 확장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면 할수록 그 만큼 평준화는 손상되기 때문에 평준화와 학교선택권은 본질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일견 난해해 보이는 이 문제는 그러나 보기에 따라 그 해법은 쉬운 것일 수도 있다. '평준화 제도 속에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신념과 같은 것이다. 다음의 글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평준화정책과 수월성교육을 논의할 때 우리가 다소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예로 학교 평준화와 학생 평준화 간의 혼란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와 학교 간 교육격

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학교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지,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시키는 '학생 평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정책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양 논의되고 있는 현상은 적절하지 않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뽑지 않음으로써 학교들 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고 고른 모습으로 출발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각 학교 안에는 당연히 우수 학생부터 중위권, 하위권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실제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다른 학교 입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받아 그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바로 수월성 교육이다. 따라서 평준화된 학교에서도 방법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

중략... 수월성 교육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이루도록 추구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의 대상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학교 안의 모든 학생'이며 수월성 교육은 모든 학교들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이다. 간혹 '수월성 교육'을 '우수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수월성 교육은 우수학생 뿐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목표이기도 하다.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있듯이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도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영재교육'은 수월성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학생 중 우수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월성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미숙, 2007).

넷째,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을 확장하는 문제는 '학교 평준화'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응답은 과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선지방고 결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학교교육여건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진정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하는 '학생 평준화'보다는 학교 서열화와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학교 평준화'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학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이른바 쏠림현상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소수 엘리트학생 유치를 통한 학교명성 쌓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그다지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은 아니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평준화 시키고, 학교 평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논의일 것이다. 본래 재목(材木)이 좋아 교사의 큰 노력 없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것보다, 거친 나무를 애써 다듬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성장이며, 교육활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에는 거친 나무들이 훨씬 많으며,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 발전에 중요한 축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 평준화 문제와 관련해 현행 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설문에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거나 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 많다. 중2학부모, 중3 학생 및 학부모를 제외한 중2학생, 고1 학생 및 학부모,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문제가 없다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배정방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자료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되새겨보면, 선지망에 의한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및 구간별 성적을 고려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배정이라는 지금의 방식은 구조적으로 쏠림현상을 유발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첨배정' 방식은 학교 간 학력의 평준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선지원 방식은 평준화 정책 속에서도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가능한 보장해보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간별 성적을 고려한 배정방식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학교 이른바 선지망율이 높은 선호학교일수록 성적은 우수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탈락될 확률이 커짐으로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학교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학교 이른바 선지망율이 낮은 비선호학교일 경우, 1지망 지원자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원도 타학교에서 1지망에서 탈락하고 2지망으로 이 학교를 지원한 학생까지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는 특정 구간점수의 학생이 쏠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특정 학교에 쏠림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구간별 성적 분포와 지원현황 자료²⁾를 분석한 결과, 선지망율이 낮은 비선호학교가 선지망율이 높은 선호학교에 비해 성적 우수학생들을 더 많이 배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은 미달되었지만 성적 우수학생이 물리지 않는 다른 학교를 고려한다면 단지 미달이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가장 지망하고 싶은 학교는 J고와 O고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타난 미달학교에 성적 우수학생들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현실은 학생들의 성적 분포와 관련한 현행 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반증하고 있다할 것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인 배정방식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제4안이라는 것이다. 구간별 성적으로 균등하게 학생들을 배분하는 4안은 평준화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뿐 아니라, 구조적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한 2안을 하

2) 여기서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교육청 관계자가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은 정원이 미달된 학교는 구조적으로 지원자 모두를 배정받을 수 있어 쏠림현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3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문외 양적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1안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4안은 향후 배정방식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1안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4안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표집크기³⁾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표집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조사하면 이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예측된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고입배정 결과의 당사자이며 교사는 실제 학교 운영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설문에서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중·고등학교 교사가 4안을 가장 선호한 결과는 현행 배정방식인 1안을 고집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4안은 보완의 여지가 있다. 가령 열심히 노력한 고등학교나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이듬해 받는 신입생의 성적 분포가 동일하다면,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단위 학교 자체의 노력은 그 만큼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과거 기록과 무관하게 모든 선수들을 100m 달리기 동일선상에서 출발시키자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시합결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애써 달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얻은 학교에게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단위 학교 자체의 노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인센티브는 성적 우수학생 배정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정원의 일정 부분을 단위 학교장의 재량권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좋은 결과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과 같은 것이다. 2007년 쏠림현상을 둘러싼 논쟁이 상위권 학생의 성적을 둘러싼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면 명문대학 진학률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수용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적 우수학생 배정비율 조정이나 학교정원의 일부를 단위 학교장 재량권으로 두는 방식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정비율 조정은 가령 5년 단위로 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점화시키지 않으면 결과가 눈덩이처럼 누적되면서 교육적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점화가 어렵다면 교사들의 복지나 학교교육과정 개발 등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등학교 입학 성적과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최근 강조되는 성장참조평가(growth-referenced evaluation)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표집크기는 4,902명,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표집크기는 1,033명임.

한편,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인정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고교가 올해 명문대학 진학률을 크게 높였지만 ‘명문대 진학을 그 자체로 학교의 명예가 높아졌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바라지 않고, 다음 해에 보다 더 높은 진학률을 위해 자랑스럽게 노력하는 학교야말로 명실상부한 명문고교이다’는 인식과 같은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인위적인 등급별 성적 균등화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특별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긍심만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인 설문조사에만 기초해 연구자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고입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이러한 양적 접근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을 위해 제주 전지역 42개 중학교 및 제주시내 8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5,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면담, 서신 현장조사 등의 탐색적 실증 분석을 병행한다면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2007).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2007. 10. 11)
- 김성봉, 양진건, 이신선, 고요섭, 김소연, 최기희, 오지현, 김경희, 고루시아(2008).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 방안 연구』.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1991). 『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반대논리』. 『교육진흥』, 13, 28-39.
- 신동로, 권인탁(2000).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교육학연구』, Vol.38, No.3, 21-39.
- 한국교육개발원(2004). 『김해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